

1970~80년대 대만 노동문학에서의 노동자 간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

林筱慈**

- | | |
|------------------------------------|--|
| I.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 III. 대만 노동문학에서의 노동문제:
노동자 간 갈등과 동족 간 갈등 |
| II. 냉전 하 검열제도와 노동문학의 형성:
한국과 대만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글은 1970~80년대 양칭추(楊青矗), 모상천(陌上塵), 리창쎌(李昌憲) 등에 의해 창작된 대만 노동문학에서 노사 분류보다 노동자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게 된 조건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1970~80년대 대만 노동문학은 향토문학의 실천이었지만, 국민당 정권이 향토문학을 마오쩌둥의 연안문예강화를 연상시키는 공농병문학(工農兵文學)으로 규정하여, 출판검열제도는 작가와 출판물을 제약했다. 이 글은 1970~80년대 대만 노동문학에서 나타난 노동자 간의 갈등은 작가가 검열제도를 의식하면서 텍스트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서사 ‘전략’이었음을 논의하고자 했다. 주요한 작품들을 통해 살펴본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본토기업의 ‘연고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승진과 임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평가를 하는 관리적 노동자에게 현장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근대화되지 않은 대만의 기업 문화를 비판한다. 화이트칼라의 설계에 기초한 현장 작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계속된 문제제기를 무시한 결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낳는 상황을 통해 사회적 풍토였던 육체노동

* 이 논문은 2020년~2021년 대만 중앙연구원 대만역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本論文係在臺灣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訪問期間完成)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박사수료

에 대한 경시를 비판하면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생산량 경쟁 때문에 노동자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풍토를 주제로 삼았다. 다른 한편 다국적 기업을 배경으로 한 대만 노동문학에서 외국인 자본가는 대만인 여공들에게 표면적으로 친절하게 대하지만, 근무평가와 승진제도에 있어서는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를 내세워 여공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여, 결국 노동문제는 대만인 노동자들 간의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주제어 : 대만 노동문학, 검열, 노동자 간 갈등, 연고주의, 승진제도, 다국적 자본주의

I.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이 글은 1970~80년대 대만 노동문학에서 노동자 문제의 설정방식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만 노동문학의 특징을 재규명하고자 한다. 1970~80년대 국민당이 경제발전을 꾀하면서 중화민국의 주권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에 대만에서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민당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었다. 국민당은 당 조직과 노동조합이 서로 결합되도록 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했으며 <동원감란시기노사 쟁의에 대한 조치(動員戡亂時期勞資爭議處理辦法)> 등 법적 수단으로 노동자의 반항을 억압했다.¹⁾ 그렇다면 대만 노동문학은 어떻게 국민당의 레드콤플렉스를 건드리지 않고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면서 노동자의 문제에 접근하였을까? 대만 노동문학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노동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1970~80년대 대만 노동문학의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자 한다.

1970~80년대 대만 노동문학의 창작은 경제발전이란 사회적 조건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양과 질, 두 방면에서 모두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철수한 국민당은 1949년부터 대만에서 화폐개혁과 토지개혁정책²⁾을 시행하고 4대 공기업(제지, 시멘트, 농림, 광업)을 발전시켰다. 동시에 1950년대 초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중단되었던 미국의 경제적·기술적 지원이 재개되자 국민당은 이를 발판으로 하여 수입대체산업화라고 불리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경공업부문의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공업성장은 가속화되었고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사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의 농업위주의 대만사회는 공업사회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인해 1957년 후반기에 이르면 부분적인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협소한 국내시장이 빠른 속도로

1) 王振寶·方孝鼎, 「國家機器·勞工政策與勞工運動」, 『臺灣社會研究季刊』 13, 臺灣社會研究雜誌社, 1992, pp.1~29.

2) 1949년부터 국민당 정권은 삼민주의(三民主義) 중의 민생주의(民生主義) 정책에 따라 대만에서 토지개혁을 진행하였다. 1949년 '375감조(三七五減租)', 1951~52년 '공지방령(公地放領)', 1953~54년 '경자유기전(耕者有其田)' 등이 그것이다.

포화상태에 이르러 심각한 생산과잉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이윤비중이 극심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미국원조와 몇몇 은행에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던 민간 기업은 고리대에 의존하는 등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게다가 농촌의 잠재적인 실업인구도 증가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이 요구되었다. 즉 생산과잉이 초래한 투자정체는 필수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금융통제의 완화를 통한 신흥이윤의 창출과 이를 통한 고용확대의 요구로 이어졌고 외화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출증가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또한 1958년부터 미국의 원조방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정부가 수출무역주도 정책을 시행했으며 1966년 가오슝(高雄)에 수출자유지역을 만들어 값싼 노동력을 투입하여 가공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70년대 들어 외교적으로 고립됨에 이어, 1973년에는 국제적인 오일쇼크로 선진국가의 소비가 위축되었고, 단순가공조립형 산업성장도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화된 경쟁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국민당 1974년부터 “10대 건설(十大建設)”정책³⁾을 통해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여 중화학공업 위주의 발전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며 공공투자에 주력하여 침체된 경기를 소생시키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산업전환을 이루었다. 1977년 국제경제정세의 회복에 힘입어 마침내 “아시아의 네 마리 용(亞洲四小龍)”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대만의 경제 기적(臺灣經濟奇蹟)’을 이루어내었다.

한편 대만 노동문학의 출현은 다음과 같은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지식인들의 대응의 소산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년초에 일어난 조어도(釣魚島) 사건, 1971년 10월 25일 중화민국의 유엔 탈퇴, 1972년 9월 일본과의 국교단절, 그리고 1978년 미국이 ‘중공’을 승인하면서 이듬해 대만과의 단교로 이어지자 국제외교에서의 고립감과 위기의식을 느낀 대만 지식인들은 대외적으로는 허위적인 중국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대내적으로는 국민당의 일당 권위체제에 대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대만 내부로 눈을 돌리는 소위 ‘향토회귀운동’의 서막이 열렸다. 문단 역시 적극 호응하여 현실을 그리는 향토성 짙은 문학이 주류 경향으로 등장했다. 향토문학론자들은 주로

3) ‘10대 건설(十大建設)’정책이란 것은 고속도로, 철도, 국제공항, 항만과 에너지 시설 등 기간산업의 건설 뿐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소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대만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국민당 체제하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로 중국민족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념지향적인 반공문학에서 언급되지 못했던 향토현실과 서구문학을 표방한 모더니즘문학에서 사라져 버린 민족전통을 중시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만경제에 대한 절대적 영향과 그로 인한 심리적, 문화적 대외 종속에 강한 비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인식에서 서구적 가치관과 감성이 팽배 하던 문화전반을 개선하여 잃어버렸던 대만의 역사기억과 대외의존 경제성장의 그늘인 향토현실에 대해 관심을 돌리자고 주장하는⁴⁾ 한편, 중국 본토에 대한 그리움에서 벗어나 “대만 땅”에서 살고 있는 하층민과 노동자·농민·어민·광부 등의 삶을 반영하는 향토문학을 창작하고 논의했다.⁵⁾ 무엇보다도 60년대 후반부터 값싼 노동력을 유인책으로 삼아 미국, 일본 등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에 의해 형성된 ‘당·국(黨國)-자본’체제는 향토와 작가들과 논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⁶⁾ 대표적인 향토문학 작가로 불리는 황춘밍(黃春明, 1935~)과 천잉전(陳映真, 1937~2016)은 서구 자본주의를 신식민주의로 지목하고 그 약탈적인 면모를 비판하고자 하였으며, 왕톈(王拓, 1944~2016)은 고향 어촌의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다루었다. 양청추(楊青矗, 1940~)와 모상천(陌上塵, 1952~), 리창셴(李昌憲, 1954~), 예상(葉香, 1950~)은 주로 가오슝 소재 공장⁷⁾의 불합리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삶을 다루는 작품을 창작하면서 향토문학론을 실천했다.

그중 양청추·모상천·리창셴·예상은 대만 노동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불리는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경험을 문학화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4) 최말순, 「『本土』와 『海洋』-대만 ‘네이션’의 안과 밖」, 『대만연구』 1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2020, 71~88면.

5) 蕭阿勤, 『重構台灣-當代民族主義的文化政治』, 聯經出版社, 2016, pp.142~156; 戴華萱, 『鄉土的回歸-6·70年代臺灣文學走向』, 國立臺灣文學館, 2012.

6) 린리원, 「향토문학논쟁 서언」, 임우경·린리원·쉬슈웨이·왕즈밍 편, 임의선·이용범 역, 『타이완 향토문학 논쟁 40주년 자료집』, 성균관대 출판부, 2017, 16면.

7) 대만 노동문학의 발전은 가오슝의 도시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대만 노동문학 작가와 그들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은 주로 가오슝에 위치하는 것이다. 가오슝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기부터 설탕 산업, 기계공장, 조선업과 군수 산업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45년 이후 국민당이 가오슝에서 수출자유지역을 만들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가오슝은 대만의 제2의 도시라는 위상을 점하고 있다. 王御風, 『臺灣學通訊』 66, 國立臺灣圖書館, 2012.

1979년 메리다오(美麗島)사건을 겪으면서 1980년대 대만 지식계가 정치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 관련 의제의 토론에 치우치고,⁸⁾ 문단 역시 국민당의 정치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시와 정치소설의 창작으로 경도되어 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노동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창작했다.

양칭추는 1961년부터 공기업인 중국석유공사(中國石油公司) 가오슝 정유소에서 관리 노동자로 일하면서 출판사를 경영하고 노동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工廠人)』(1975) · 『공장의 연기 아래서(廠煙下)』(1978) ·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工廠女兒圈)』(1978) ·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원(工廠人的心願)』(1978) · 『타향에서 온 여자들(外鄉女)』(2017)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문황(文皇)’출판사와 ‘돈리(敦理)’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것이다. 본명이 류전취안(劉振權)인 모상전은 17세 때부터 공기업인 중국조선공사(中國造船公司)에 기능공으로 입사하였다. 「기계공의 시초(黑手詩抄)」⁹⁾를 쓰면서 노동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무서운 꿈 99(夢魘九十九)』(1983) · 『긴 밤(長夜漫漫)』(1986) · 『조선소 노동자 수기(造船廠手記)』(1988) 등의 작품이 있다. 노동시인으로도 알려진 리창셴은 1977년 가오슝 난쯔(楠梓)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관리 업무 담당자로 일하였으며 1979년부터 시 잡지 『햇살 陽光小集』의 편집을 맡았고 수출자유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노동시도 창작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동문학 작품으로는 『수출자유지역에 대한 시(加工區詩抄)』(1981) · 『생산 라인에서(生產線上)』(1996) 등이 있다. 유일한 여성작가인 예샹은 본명이 후웨샹(胡月香)이고 가오슝전자회사(高雄電子公司)에서 품질관리자로 일한 적이 있으며 신문매체인 『중국시보 中國時報』와 잡지사인 『가정월간 家庭月刊』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 그녀의 노동시로는 「공장일(工作)」 · 「야근(加班)」 · 「아쥬(阿菊)」 · 「월급봉투(薪水袋)」 · 「송금(匯錢)」 · 「일곱시 반의 출근체크(七點半的卡)」 · 「샤오잉쉐(蕭映雪)」 등이 있다.¹⁰⁾ 1984년 『대만문예』 잡지사가 가오슝에서 주최한 ‘대만 노동문학에 대한 회고와 전망(工人文學的回顧與前瞻)’ 좌담회에서 나온 작가 우진파(吳錦發, 1954~)의 말을 빌려 대만 노동

8) 呂正惠, 「台灣七·八零年代台灣鄉土文學的源流與變遷-政治·社會及思想背景的探討」, 陳大偉·鍾怡雯, 『20世紀台灣文學專題-文學思潮與論戰』, 萬卷樓, 2006.

9) 陌上塵, 『玉香集』, 德馨室, 1978, pp.84.

10) 그녀의 노동시는 葉香, 『微雨·詩和小品』, 臺東縣文化中心, 1998에 수록되어 있다.

문학의 특징적 면모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대만 노동문학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난 노사갈등을 묘사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노동자의 사랑, 결혼과 가정생활 등 사적인 영역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 마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대만 노동문학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자본가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적 영역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도 주로 관리직 노동자에 의해 창작되었다는 것 역시 대만 노동문학의 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만문학사와 개별 문학평론에서 대개는 대만 노동문학이 산업화/근대화 로 인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억압당하는 노동자의 불만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그들이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해 왔다.¹²⁾ 노동문학에 대한 기존연구 현황은 크게 두 가지의 연구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만 노동문학에 나타난 노동문제와 그 해결책의 유형을 분류하고 노동문학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대만 노동문학 작가의 출신·성별(性別)과 직업(계급)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노동자들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이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측의 편에 서기도 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이다.

먼저, 대만 노동문학이 현장성과 저항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허우루치(侯如綺)¹³⁾ · 리수진(李淑君)¹⁴⁾ · 왕야핑(王雅萍)¹⁵⁾ 등은 주로 대만 노동문학에서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고, 천샤오쥘안(陳曉娟)은 양칭추가 ‘노동자도 공장을 함께 소유한다.(工者有其廠)’라는 개념에 입각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1) 胡民祥編, 『臺灣文學入門文選』, 前衛出版社, 1989, pp.261.

12) 彭瑞金, 『臺灣新文學運動』, 自立晚報, 1991, pp.274; 高棟民, 「楊青矗小說中所反映的『現代化』問題」, 『楊青矗小說選』, 敦理出版社, 1978; 許俊雅, 「從楊青矗小說看戰後台灣社會的變遷」, 『臺灣文學散論』, 文史哲, 1994, pp.321~361.

13) 侯如綺, 「楊青矗小說的『工廠女兒圈』中的女性關懷」, 『臺灣文藝』 182, 2002.

14) 李淑君, 「資本主義及現代性下的女工-論楊青矗小說的女工主體與處境」, 『臺灣文學評論』 6(4), 真理大學臺灣文學資料館, 2006.

15) 王雅萍, 「誰來發聲? 1970年代以後臺灣勞工文學的興起與式微」, 成功大學臺灣文學所碩士學位論文, 2007.

소설 내용을 설정하였다고 분석했다.¹⁶⁾ 세스중(謝世宗)은 양칭추의 작품에서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교환물품 삼아 남성 관리직 노동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계급상승의 기회를 노리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끌어들여 자본주의 물질만능의 세태를 비판한다고 분석했다.¹⁷⁾ 그에 따르면, 천잉전의 『만상제군(萬商帝君)』이 외국인 자본가와 대만인 노동자 간의 대립을 부각시켰음을 통해 서양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중국민족주의를 제창하는 한편에, 양칭추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1978)은 뚜렷한 민족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대만 본토기업이 서양자본주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급적 관점에서 승진하기 위해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가 같은 국적의 대만인 현장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동을 비판한다.¹⁸⁾

두 번째는 노동문학 작가의 출신-성별과 계급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성) 노동자와 다르다는 점과 국민당 독재체제가 작품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만 노동문학이 과연 노동자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등의 저항의식을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보이는 연구이다. 세권화(解昆樺)는 “리창셴이 노동시를 창작하는 동안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중간관리자가 된 이후에는 회사를 칭찬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온다. 비록 그의 『생산라인』 중 화태(華泰)전자회사를 주제로 하는 작품들에서 관리자와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없지 않지만 사측의 입장에 서서 노사분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더 강력하다.”¹⁹⁾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이화쉬안(戴華萱)은 “양칭추가 남성 작가로서 여전히 여성은 남성에게 의지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여성 노동자가 결혼 대상을 찾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려진다.”²⁰⁾고 작가의 성차별적 시각을 비판했다. 또 중국에서 나온 바이샤오판(白少帆) 등의 『현대대만문학사(現代臺灣文學史)』에서는 “양칭추의 노동문학은 산업화로 인한 노동문제를 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상

16) 陳曉娟, 「楊青矗小說中的抗爭主題」, 東海大學中文所碩士學位論文, 2000.

17) 謝世宗, 「愛情・性與婚姻的政治經濟學-再論楊青矗的小說」, 『臺灣文學研究』 9, 成功大學臺灣文學系, 2015, pp.283~319.

18) 謝世宗, 「企業管理・性別分工與本土資產階級的想像-楊青矗與陳映真比較研究」, 『臺灣文學研究學報』 20, 2015, pp.219~249.

19) 解昆樺, 『青春構詩』, 苗栗國際文化觀光局, 2007, pp.339~340.

20) 戴華萱, 「勞動與性別-楊青矗與曾心儀的女性勞工書寫比較與對話」, 『臺灣文學研究學報』 31, 國立臺灣文學館, 2020, pp.153~189.

적인 한계'가 보인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지식인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저항하는 것을 격려하지만 결국은 노동자와 자본가를 서로 화해시키는 방식으로 소설을 마무리하곤 하기 때문이다.”²¹⁾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리창셴은 흔히 친자본적이라고 평가받는 「화태전자회사에게 바치는 찬가(1)(2)(華泰頌1)」(1981.6, 1991.6)를 쓴 근 10년 전후하여 「톱니바퀴처럼 일한다.(轉動的齒輪)」(1980.9), 「생산라인에서(1)-(7)(生產線上1-7)」((1981.7-1982.6)과 「희망의 노래(希望之歌)」(1983.7)와 같은 친자본적 작품만을 쓴 것은 아니다. 리창셴은 「심정(心情)」(1981.3), 「냉정한 기업주(企業無情)」(1980.6)와 「임금노동자(臨時工)」(1980.9)와 같은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과 고통에 대한 작품도 창작하였다. 리창셴이 관리직 노동자로 승진한 이후 친자본적 작품도 비판적인 작품도 쓰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노동시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작가의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의 노동시가 어디에 게재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친자본적인 작품들이 모두 기업과 정부의 기관지인 『수출자유지역(加工區區刊)』, 『공장의 친구들(工廠之友)』과 『화태월간(華泰月刊)』에서 발표된 반면, 비판적인 작품은 문예잡지인 『햇빛시집(陽光小集)』과 『대만문예(臺灣文藝)』에 게재된 것이다. 요컨대, 1970~80년대 대만의 검열제도 하에서 국민당정권의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문제의식을 명백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연하게도 대만 노동문학은 검열제도를 의식하면서 이루어진 글쓰기라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을 달리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검열체제가 성립되어 해방 이후 냉전체제 하에도 계승되었던 한국의 경우 어떻게 노동문학이 형성되었는지를 참조하여 대만 노동문학의 한 조건이기도 했던 대만의 검열제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대만 노동문학에 검열제도가 어떻게 작용하여 특유한 노동문제 설정 방식과 해결 방식을 서사화하는 작품들을 낳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1) 白少帆·王玉斌·張恒春·武治純, 『現代臺灣文學史』, 遼寧大學出版社, 1987, pp.701~708.

II. 냉전 하 검열제도와 노동문학의 형성: 한국과 대만

한기형은 ‘법역(法域)’과 ‘문역(文域)’이라는 개념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 내지와 식민지 조선 출판물의 표현력 차이와 조선에서 이중출판시장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²²⁾ 검열기준과 관행의 차이에 따라 일본 내지와 조선의 출판물 종류와 출판시장의 규모도 달랐다. 일본 내지에서 조선 작가들이 ‘노동’,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었던 한편, 조선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검열의 방법적 위계로 인한 지적 격차가 상당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이입되는 출판물이 점점 더 많아져 조선에서 이중출판시장이 형성하였다. 이러한 ‘법역’과 ‘문역’의 관점이 한국 검열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 권위주의정권에 의한 검열은 식민지검열의 제도적 유산을 승계되고 냉전체제에 속박되었다. 이봉범은 식민지검열의 법적 기제 가운데 핵심이었던 (광무)신문지법은 1952년에 공식 폐기됐지만 그 영향은 이후 언론출판관련 법안들에 반복적으로 재생되어 <언론기본법>(1980.12제정/1987.11폐지)의 근간을 이루었으며²³⁾ 반공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는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사상과 운동을 탄압하는 기제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키는 명목 하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고 하였다.²⁴⁾ 정리하면 한국의 경우, 해방은 식민지 검열의 종식이 아니라 냉전 검열의 시작이었는데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가 국가권력에 의해 금압의 대상이었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는 노동문학이 발생, 성장하기 시작했다. ‘여공’, 심지어 ‘공순이’라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은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란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 수기를 쓰는 한편²⁶⁾ 자신들에게 향한

22) 한기형, 「‘법역(法域)’과 ‘문역(文域)’-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화사연구』 44, 민족문화사학회, 2010.

23) 이봉범,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157면.

24)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25) 이해령, 「동아시아 근대 매체, 언어, 검열 연구의 궤적과 미래」, 『대동문화연구』 11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113~149면.

26)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화사연구』 47, 민족문화사학회, 2011.

사회적 동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작가’가 되려는 욕망은 몇몇 여성 노동자들을 수기를 넘어 소설 작가로 인도하였다.²⁷⁾ 1970년 분신자살한 노동자 전태일을 계승한다는 의식을 가시적으로 표방한 1980년대 본격화된 노동운동 속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분신자살은 노동열사를 탄생시켜 노동운동을 형제애적 연대로 의미화하는 상징적 구심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었다.²⁸⁾ 1980년대 여성 노동자의 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운동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민족주의의 억압적 성격을 비판하는 데 이르렀다.²⁹⁾ 이처럼 여러 연구들은 독재체제 하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왔음을 말해준다. 얼굴 없는 시인 박노해가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명시적 표방한 단체 활동으로 수감되어야 했던 상황까지를 포함하여,³⁰⁾ 한국에서 노동문학의 대두와 성장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 반공주의 체제에 균열을 가하고 끊임없이 ‘문역’의 확장을 시험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급진적인 좌익사상의 표현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한편 대만 검열체제의 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민당은 대만총독부로부터 대만을 점령하면서 권력과 정치 체제가 이양되면서, 1945년 11월 3일 대만행정장관공서중화민국의 법률과 규정의 적용과 함께 그와 모순되지 않는 일제 강점기의 모든 법률과 규정의 일시적 시행이 공포되었다.³¹⁾ 이에 따라 1946년까지 대만에서 일제식민지시기의 검열제도와 중화민국의 법령이 병행하였다. 중화민국 헌법 제11조는 “국민이 언론, 강학, 저서,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지만, 1949년 5월 20일 국민당이 대만에서 『계엄령(戒嚴令)』을 선포하여 대만인의 언론, 집회, 결사와 청원 등 권리를 박탈했다. 국민당은 대만에서 다양한 검열법을 제정했는데 관할기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체제인 내정부(內政部) 신문처(新聞處)(1963년 이후 신문국(新聞局)으로 변경)와 교육청이

27)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여공수기와 소설에서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9, 한국근대문학회, 2018.

28) 김원,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 『민족문학사연구』 59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정고은, 「1980년대 노동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연구」,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29) 박지영,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시에 나타난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화-최명자, 정명자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5, 한국시학회, 2018.

30) 이해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1980년대 노동문학론 소고」,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31) 楊秀菁, 『臺灣戒嚴時期的新聞管制政策』, 國立編譯館, 2005, pp.19~34.

주로 『출판법(出版法)』에 근거하여 검열을 담당하는 한편, 군사체제인 대만성경비총사령부(臺灣省警備總司令部)가 『계엄령』과 『대만지역 계엄기간의 출판법(臺灣地區戒嚴期間出版法)』에 근거하여 검열을 진행했다. 1960년대 이후 내정부를 대신하여 대만성경찰총사령부가 주요한 검열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모든 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경찰본부가 있다(人人心中都有一個小警總)”는 속담이 생겼다.³²⁾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냉전의 방파제를 자임했던 국민당 정권은 이러한 법률을 활용하여 좌경문학과 체제비판서적을 금지하였다. 1950~60년대의 대만문단에서는 ‘계급’과 ‘하층민-농민과 노동자’가 금기어로 취급되었는데 주로 중국공산당과 대치하던 정부의 반공주의 문예정책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국민당 정권은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중국본토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으로 1930년대 ‘문학예술계가 정부를 전면적으로 반대했기(全國文學藝術界一面倒, 反對政府)’ 때문이라고 여겨³³⁾ 1930년대 중국 좌익문학과 공농병문학(工農兵文學)을 대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문학내용에 대한 검열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1950년대 반공문학 시기는 물론이고 미국의 문화냉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1960년대 모더니즘문학 시기³⁴⁾에도 노동문학은 거의 창작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국민당이 역시 지식인의 사상활동을 감시하고 억압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968년에 일어난 ‘민주대만동맹 사건(民主臺灣聯盟案)’이었다. 1968년 7월 31일에 천잉전, 리취청(李作成)과 우야오중(吳耀忠) 등이 주일본 중화민국대사관의 우편물을 이용해 일본에서 좌파 서적을 대만으로 들여와 스터디에서 배포한 혐의로 고발되어 국민당은 이들을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민주대만동맹(民主臺灣聯盟)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같은 해 12월 31일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천잉전이 『문학계간(文學季刊)』의 편집위원으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계간』에 참여하는 다른 작가들도 국민당에 의심을 받고 연루되었다.³⁵⁾ 대만에서 이 사건을 ‘문학계간 사건(文季事件)’이라고 불렀다.

32) 薛化元·楊秀蓀·黃仁姿, 『臺灣言論自由的過去與現在-我國言論自由及制度變革』, 允晨文化出版社, 2021, pp.16~72.

33) 張俐璇, 「從問題到研究-中國三十年代文藝在臺灣(1966~1987)」, 『成大中文學報』 63, 成功大學中國文學系, 2018, pp.159~190.

34) 崔末順, 「亞洲基金會(The Asia Foundation)在臺活動與冷戰時期臺灣文學的傾向」, 『殖民與冷戰的東亞視野-對臺韓文學的一個觀察』, 遠景出版社, 2021, pp.299~340.

35) 季季, 『行走的樹-追懷我與‘民主臺灣聯盟’案的時代』, 印刻文學, 2015.

1977년 4월 1일 잡지 『선인장(仙人掌)』에서 향토문학론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이 게재됐다. 왕토틈(王拓)·양칭추·천잉전과 위텐충(尉天驄) 등이 향토문학은 분리주의, 즉 중국민족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문학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중국본토에 대한 환상을 버려 대만 땅에 살고 있는 하층민의 삶을 반영하고 서구자본주의가 대만의 경제와 문화를 침략한다고 비판하는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강조하는 반면에, 인정송(銀正雄), 펑거(彭歌)와 위광중(余光中) 등은 향토문학이 의도적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고통을 과시하고 계급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이 옹호하는 공농병문학과 다르지 않고 중화민국의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문학이라고 비판한다.³⁶⁾ 이를 계기로 국민당은 이른바 향토문학 작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양비환(楊碧川)에 따르면, 1977년 7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민당의 기관지, 『중국시보(中國時報)』와 『연합보(聯合報)』에 향토문학을 공격하는 기사가 무려 58건이 실렸다.³⁷⁾ 양칭추는 『중국시보』와 『연합보』의 칼럼을 통해 자신이 노동문학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으며 작품도 검열을 당했다고 털어놓았고³⁸⁾ 실제로 1977년부터 양칭추의 작품들은 국민당 정권에겐 용납되지 않았다. 양칭추의 소설 「자오위 씨의 청춘(昭玉的青春)」, 「노동자가 돈을 버는 속도가 거북이 벽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리고, 자본가가 돈을 버는 속도가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빠르다.(龜爬壁與水崩山)」와 「후계자(香火)」가 『연합보(聯合報)』에 발표되자 경찰은 『연합보』와 『중국시보』의 담당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양칭추는 일상생활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았고 그의 작품도 더 이상 신문잡지에서 실릴 수 없게 되었다. 양칭추 뿐만 아니라 모상천과 리창셴도 노동자와 관련된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에 억압을 당했다고 증언했다.³⁹⁾ 국민당 정권이 계급문제와 좌익사상을 금기어를 취급했으며 이로 인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시보』의 편집장인 가오신장(高信疆) 등 진보적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좌익경향의 문학을 보급하고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⁴⁰⁾ 『금서목록(查禁圖書目錄)』(1982)⁴¹⁾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노동자

36) 尉天驄, 『鄉土文學討論集』, 遠景出版社, 1980 참조.

37) 楊碧川, 『臺灣歷史辭典』, 前衛出版社, 1997, pp.335.

38) 侯如綺, 앞의 논문, 2002, pp.30.

39) 陌上塵, 앞의 책, 1988, pp.100; 陌上塵, 「工人文學的回顧與前瞻」, 胡民祥編, 앞의 책, 1989, pp.257~258.

의 실업, 그리고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의 『풍요한 사회(The Affluent Society)』(1958)와 고용주에게 억압받는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의 『인간의 조건(전 2권)』(1955)은 ‘반공항아(反共抗俄)’라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언론’과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그림 및 문자’로 간주되어 『제엄법』에 따라 금서가 되었다. 『금서목록』에 수록된 책이 금서의 전부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책이 금지된다는 점⁴²⁾을 감안하여 국민당 독재체제 하에서 노동쟁의와 같은 계급문제가 금기시되는 주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이, 1970~80년대 대만 노동문학 작가들은 당시 정부의 검열체제를 의식하면서도 노동문학을 써내고자 했다. 즉, 자신이 쓸 작품이 법적으로 허용될 것인가를 가늠하면서 창작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글쓰기의 ‘문역’이 생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만 노동문학은 어떻게 국민당의 레드콤플렉스를 건드리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면서 다양하게 노동문제를 접근하였을까? 앞으로 논의될 대만 노동문학에서 주로 다룬 노동문제와 그에 대한 서사적 해결책은 대만 노동문학의 ‘문역’을 드러내줄 것이다.

Ⅲ. 대만 노동문학에서의 노동문제: 노동자 간 갈등과 동족 간 갈등

양칭추의 단편소설집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工廠人)』에 실린 이야기는 회사의 생산관리 체계와 근무평가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노동자 내부에서 여전히 갈등이 생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소설집의 다수 내용이 잘 만들어진 근무평가제도 하에도 관리직 노동자가 뇌물을 받고 ‘연고주의’에 의해 업무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문제를 다룬다. 예컨대, 「직급 5등급

40) 張誦聖 著, 劉俊·馮雪峰等 譯, 『臺灣文學生態-從戒嚴法則到市場規律』, 江蘇大學出版社, 2016, pp.153~165.

41) 1982년 대만성정부(臺灣省政府), 타이베이시청(臺北市政府)과 대만성경비총사령부(臺灣省警備總司令部)에 의해 편찬된 『금서목록(查禁圖書目錄)』에 1950년 1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금지된 도서의 제목이 수록되었다.

42) 蔡盛琦, 「1950年代圖書查禁之研究」, 『國史館館刊』 26, 國史館, 2010, pp.93~94.

「(工等五等)」에서 주인공 루민청(陸敏成)은 공장에서 전기 기능공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장 월급으로는 아내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업으로 작은 전기 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그가 낮은 월급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근무평가’의 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루민청은 근무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그에 따른 월급을 받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전기 기능공 중 그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기능공의 경우 근무평가에서 12등급을 받아 한 달에 그보다 두 배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루민청이 이런 대우를 받는 이유는 공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무평가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무평가가 불공정한 이유가 그것을 담당하는 관리직 노동자가 개인적인 인맥 관계를 지키려고 편파적인 근무평가를 하기 때문임이 밝혀진다.

근무평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그 가운데 수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승진했다. 그(루민청)는 과장에게 세 번이나 찾아가 자신이 낮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과장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과장과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들은 업무평가를 잘 받고 승승장구했다. …… 게다가 과장이 근무평가 주임위원을 겸임하면서 같은 부서의 그와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억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32면)⁴³⁾

인용문에서 보듯이 근무평가를 담당하는 관리직 노동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은 좋은 근무평가를 받아 직급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월급과 노동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근무평가제도의 취지는 업무 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개개인 노동자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취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연고주의’, 친소 관계와 같은 관리직 노동자의 자의에 따른 근무평가란 회사의 근무평가제도를 무력화하여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고 결국에는 노동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이 소설은 담고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루민청은 사무직들이 몇몇 현장 노동자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근무평가를 잘 해주는 것을 대가로 그들로부터 뇌물, 향응을

43) “評價已經實施五年了，有辦法的人一等等往上爬，他（陸敏成）曾硬著頭皮找過課長三次，要求申覆，課長都不受理。但幾個和課長交情好的人，原來已評得很好了，卻仍一等等地跳上去。陸敏成對工作漸漸厭煩，嗟嘆跟錯了課長，課長身兼場內的評價主任委員，把自己課裡的一部份跟他沒緣的人壓得低低的。”

제공받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근무 평가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여긴다. 관리직 노동자와 친분이 있고 상사에게 아부를 잘 하는 노동자가 승승장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업무상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덮고 지나갈 수 있었다.

이제 조그마한 희망조차 깨졌다. 지난 번 생산부에서 황진산(黃金山)이 모터를 잘못 교체했는데도 해고당하지 않았다. 그가 교체 수완이 좋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에 모터를 잘못 교제한 노동자가 교체 수완이 좋은 황진산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였다면 그 사람 바로 해고되었을 것이다. 루민청은 자기가 교체 수완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상사에게 아부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직장은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35면)⁴⁴⁾

현장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더라도 친분이 있으면 봐 주는 상황을 다른 현장 노동자가 모를 리는 없는 것이다. 일부 노동자를 타락시키는 이러한 근무평가는 성실히 업무에 임한 다른 노동자에 대한 착취이자 배척이라고 할 수 있다. 루민청의 예에 서처럼 관리직 노동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현장 노동자가 공장에 떠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측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양칭추는 「승진(升)」, 「간힘(圍)」, 「권력을 장악할 때(掌權之時)」와 같은 소설에서도 근무평가를 담당하는 관리직 노동자가 직위상 권력을 이용하는 양상을 더욱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현장 노동자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뇌물을 달라고 괴롭혀 급기야 현장 노동자의 불만을 야기하여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양칭추의 작품에서 제시된 노동문제란 이처럼 노사갈등이 아니라 ‘연고주의’적인 근무평가를 하는 관리직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모상천의 「화재를 당했다(火浴)」에서 ‘팀워크의 문제’로 인해 관리직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조선소 노동자 리궤이정(李桂正)은 반장으로서 다른 7명의 팀원과 함께 선실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맡았다.

44) “一丁點的希望碎了。前次生產部的馬達如不是交際靈活的黃金山裝的，換個別人早就被開除了。陸敏成想到自己沒有交際手腕，沒有拍馬屁的本領，也從來不向主管低頭講好話，這個地方已不適合他生存了。”

모든 팀원들은 모두 리웨이정을 존경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조선소 관리직 노동자 양서우첸(楊守謙)은 리웨이정과 그의 팀원들이 자꾸 예정된 작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폐해를 끼쳤다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예정된 작업진도가 지연된 이유는 설계사가 완성된 설계도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는 팀워크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작업 현장의 상황만 보고 작업진도가 지연된 것은 전부 현장 노동자의 잘못으로 간주하였다. 어느 누구도 현장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았으며 작업 진도가 지연될 때마다 그들은 관리직 노동자를 대신해 비난을 받게 된다. 소설의 말미에 선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리웨이정을 비롯한 현장 노동자들이 희생당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관리직 노동자인 설계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설계사가 설계도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현장 노동자가 배관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배관설치가 끝나기 전에 연료 탱크가 채워졌기 때문에 화재가 난 것이었다. 밀린 작업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현장 노동자가 설계도 없이 불안정한 작업현장에서 연일 초과근무를 하다가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이다. 이 소설은 관리직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발언권을 쥐고 있는 반면에 현장 노동자의 노고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지적되었지만,⁴⁵⁾ 이 소설은 관리직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에 대한 위계적이고도 차별적 시선이 노동현장을 어떻게 위험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좀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갈등에 대한 리창셴의 평가이다. 소설에서 이웨이정의 팀원 중의 한 명인 우룽페이(吳龍飛)는 늦잠을 자고서도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반장인 리웨이정은 그를 걱정했는데 이유는 회사의 규정에 노동자가 사전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를 하기 때문이었다. 리웨이정은 우룽페이가 늦잠을 자주 자긴 하지만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종종 상사 앞에서 우룽페이를 위해 사정을 했고 다른 노동자들은 우룽페이를 감싸주는 리웨이정에 불만을 품고 상사 앞에서 그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리웨이정은 이러한 사실에 너무 서운해 하며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기보다는 상호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공장에서 노사갈등보다 노동자 내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다.

45) 楊青矗, 「勞心者與勞力者孰貴?」, 『工廠人的心願』, 敦理出版社, 1979 再版, pp.117~126.

노동자 내부의 문제보다 노사분규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자본가는 그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할 뿐이다.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오히려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49~50면)⁴⁶⁾

1970~80년대 대만 경제발전의 동력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한 대가로 생산원가를 낮추어 국제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상천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설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력을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노동자 내부의 갈등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때문에 그의 소설에서는 노동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기는 커녕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노동자 내부의 모순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고 개선하기가 어려운 노동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듯이, 대만 노동문학은 노동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자본가를 등장시키지 않고 현장 노동자와 관리직 노동자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칭추는 ‘문황(文皇)출판사’와 ‘돈리(敦理)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노동문학을 출판하였다. 이는 그만큼 노동문학을 출판해주는 출판사가 많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라 하더라도 검열제도의 바깥은 아니었다.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노동문제를 서사화한 것은, 일종의 ‘검열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검열우회’란 작가들이 ‘쓰고자 하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의 긴장과 절충을 의미하고 ‘쓸 수 없을 것’을 우회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활용하는 것⁴⁷⁾으로, 위에서 살펴본 대만 노동문학은 노사갈등을 노동자 간 갈등으로 절충하고 간접화하였던 것이다.

1970~80년대 대만은 국제무역제체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며 이러한 배경아래 대만 노동문학 역시 다국적 자본주의체제와 대만인 노동자 간의 갈등을 다루기 시작했

46) “現在勞資間的問題，並不如勞力自身的問題嚴重，資方只是為了自身的利益要求勞工多付出勞力，供他賺取更多的錢財，而勞工自身的爭鬥，卻嚴重地損傷了勞工的地位，這個問題在目前，或者在十年，二十年之間很難獲得改善。”

47) 한만수,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다. 리창센의 「공장에 참관하러 온 일본인 (參觀的東洋人)」은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가 같은 국적의 대만인 여공을 천대하면서 공장을 참관하러 온 일본인에게 아부하지만 무시를 당하는 것을 풍자하는 이야기다. 「여공의 마음속 이야기(女工心聲)」는 외국인 자본가가 대만인 여공을 착취하는 행동을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하고 억압한 근대사와 함께 연결시키고 있으며 「결정적인 회의(決定性會議)」에서는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가 일본인 투자자에게 아부하기 위해 대만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노조간부를 해고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工廠人)」에서는 외국인 자본가가 경제 불황을 이유로 노동자의 연말 보너스를 삭감하지만 이에 대해 대만인 노동자들은 감히 반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소설 내용을 통해, 대만인의 민족성, 노예성(奴隸性)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즉, 대만 노동문학은 다국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외국인 자본가, 대만인 중간관리직 노동자와 대만인 현장 노동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다니는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가 신식민주의에 승복하고 있음을 논구해왔다.⁴⁸⁾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국적 기업을 배경으로 하는 양창추의 노동소설에서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 간의 갈등인데, 그 이유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관리직 노동자의 처지와 다국적 자본주의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츄샤의 병가(秋霞的病假)」는 일본인 자본가가 경영하는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여공 츄샤(秋霞)가 잦은 야근으로 인해 극심한 복통과 빈혈을 겪다가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이 그리고 있다. 츄샤는 입원판정을 받았는데도 회사의 조치가 무서워서 감히 병가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노동자가 병가를 내면 사측이 노동자의 전일제 보너스를 몰수하기 때문이다. 츄샤의 오빠인 샤오이푸(蕭毅夫)가 회사에 여동생의 노동자 보험을 신청하러 갔지만 노동자 보험 증명서에다 “노동자 입원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는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는 노동조합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대만의 노동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노동자가 병가를 신청해도 전액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액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만인 관리직인 허(何)과장은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소설의 말미에 일본인 사장

48) 黃慧鳳, 『臺灣勞工文學』, 稻香出版社, 2007; 賴佳欣, 「女兒國度的美麗與哀愁-論楊青矗『工廠女兒圈』的女工群像」, 『歷史教育』 12, 臺灣師範大學歷史學系, 2008.

이 통역을 통해 추사에게 임금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데 샤오이푸는 이런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만다. 소설에서 일본인 회장이 직접적으로 대만인 노동자와 대화를 하기 싫어해서 반드시 통역을 통해 교류하는 것은 일본이 대만을 식민통치 했기 때문에 시종일관 대만인을 천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⁴⁹⁾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대목은 소설의 결말에 추사에게 임금의 절반 정도를 주기로 하는 사람이 대만인 앞에서 시종일관 우월감을 느끼는 일본인이며, 허과장은 오히려 같은 국적의 대만인 현장 노동자를 괴롭히는 악질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샤오이푸가 대만인 중간 관리직인 허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당신도 대만인이면서 우리 대만이 일본에 침략당해 51년 만에 겨우 전쟁에서 이겨서 일본에게서 벗어난 것을 몰라요? 과장이 된 당신이 자신의 동포인 여성 노동자를 지키기는커녕 일본인의 경제적 침략에 일조하고 같은 국적의 우리 여공들을 착취하다니! 일본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 모두 같은 대만인 중간 관리직인 과장, 부장과 주임을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일본인 사장에게 아부한다고 욕하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요.(72면)⁵⁰⁾

이렇듯이, 여공이 절차대로 병가를 신청하는데도 허과장은 사규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망국사를 망각하는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본토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오직 사규에 따라 하면 사측과 같은 편에 서는 ‘모범노동자’로 평판을 받는 한편에, 다국적 기업에서는 외국인 자본가의 지시를 따르는 노동자는 매국노로 물리고 현장 노동자와의 갈등이 ‘민족주의의 문제’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국적 기업에서 중간 관리직 노동자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49) 鍾怡君, 「楊青矗小說勞動人物研究」, 高雄師範大學中文所碩士學位論文, 2013, pp.38~41.

50) “你是台灣人, 日本侵略台灣五十一年, 好不容易打了勝仗脫離他們侵略。現在你當課長, 不為自己同胞的勞工姐妹說話, 還幫日本人經濟侵略, 剝削我們的女工。難怪在日本人開的工廠工作的女工都罵中間幹部的中國人課長、經理、主任是哈巴狗, 只顧自己的升遷討好日本老闆。”

부장님(自己的經理)」과 「승진하는 길(陞遷道上)」 등 소설에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관리제도, 중간 관리직 노동자의 입장과 현장 노동자의 관점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경영방식과 중간 관리직 노동자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의 부장님」의 주인공인 라오로수옌(廖羅淑燕)은 다국적 기업인 웨이순(偉順) 전기회사에서 금속을 황산으로 표백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다. 어느 날 그녀가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작업으로 황산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질은 연기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대만인 링원한(凌雲漢) 부장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그녀의 임금과 병원비를 지급해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진 그녀의 손에서 5,000원을 쥐어주고 해고시킨다. 그러자 링부장의 행위에 불만을 품은 그녀의 남편 라오시칭(廖石清)이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가 린(林)의원의 도움으로 정부 관계자가 그녀의 산재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의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음이 지적되자 로버트 사장은 통역을 통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들을 접대하면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라오로수옌의 임금과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다.

로버트가 사장으로서 산재사건에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링 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산재사건을 은폐하고 허술하게 뒷수습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이 저희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회사에 조사하러 오기 전까지 만해도 제가 라오로수옌이 작업과정에 황산 폭발로 다쳤다는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 링 부장은 제게 이 일을 보고하지 않았습다. 그녀의 임금과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회사의 뜻이 아니라 링 부장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과 링 부장이 모두 중국인인데요. 왜 중국인 링 부장이 동포(同胞)인 여성노동자를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164면)⁵¹⁾

51) “這是敝公司應負的責任, 我到今天您們來檢查才知道敝公司有一位廖羅淑燕因為硫酸爆炸受傷. …… (略)他那部門的凌經理沒有把這件事情報上來. 她受傷就把她解僱, 不負醫療費用和公傷假薪水, 這

로버트는 산재 사건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우호적인 이미지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국적 기업에서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가 같은 국적의 대만인 현장 노동자를 억압하는 데서 생긴 갈등을 대만인 동족 간의 문제로 취급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저 대만인 내부의 갈등일 뿐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아래 인용문은 링 부장이 그 산재사건을 사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고(顧)팀장과 나눈 대화이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공장장님과 회장님도 모르게 해줘요. 윗사람이 이 사건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업무평가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링 부장은 고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회사 동료가 다 같이 모금을 해서 문병하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전해줘요. 그러다가 온 회사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될 겁니다.(155면)⁵²⁾

링 부장이 회사 모르게 랴오로수옌의 산재사건을 덮고 사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이유는 자기 팀의 업무평가가 안 좋게 나올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다국적 기업에서 대만인 중간 관리직 노동자 링 부장이 노동법을 어기면서까지 같은 대만인 공장 여공의 산재사건을 대응하는 이유는 그 역시 임노동을 팔아야 하는 ‘노동자’이기 때이며, 그의 임금은 회사의 업무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부라보이(Michael Burawoy)는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 간의 경쟁(the game of making out)’, ‘회사 내부의 노동력 시장(internal labor market)’과 ‘회사 내부의 국가체제(internal state)’란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자를 기꺼이 회사를 위해 일하게 만들며 그중 ‘회사 내부의 노동력 시장’이란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정확하게 근무평가와 승진제도를 제정하면서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회사를 인정하고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³⁾라고 했다.

完全是凌經理的主意，我毫不知情。凌經理是你們中國人，我不懂你們中國人經理為什麼對他自己的同胞這樣做？我不懂。”

- 52) “凌經理向他說：「這個事不要說出去，不要讓廠長和總裁曉得，上面知道了我們成績不好，這部分我們自己處理就可以了。」」「有些同事要發起募捐，拿一些錢去看他」「叫他們不必了，這樣反而宣揚出去使全公司都曉得。」”

이에 따르면, 링 부장과 라오로수엔 간의 갈등은 대만 민족 내부의 갈등이라기보다 다국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평가와 승진제도가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가 기꺼이 회사를 위한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인 자본가가 대만에서 투자하는 IC 칩 공장 완싱(萬星) 회사를 배경으로 한 「승진하는 길」에서도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이자 노조 위원장인 린진궈이(林進貴)가 노조를 장악하고 노동자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가는 그를 공장장으로 승진시켰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대만인 여공들은 자기를 천대하고 초과근무를 강요하면서 외국인 자본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는 그를 싫어하고 같은 국적의 대만인 여공의 힘들을 헤아리는 류진관(劉景寬) 부장을 존경한다. 그런데 대만인 여공의 복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 류진관 부장은 회사에서 승진은 커녕 도리어 강등된다. 류진관이 좌천된 이후 린진궈이의 심복인 선이디(沈義地)는 여공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선이디 역시 린진궈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공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때문에 란웨메이(藍瑞梅)를 비롯한 여공들은 집단퇴사를 하겠다고 항의한다. 선이디는 그저 외국인 자본가의 지시를 따라 여공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공들의 입장에서 자본가는 항상 친절하게 자기와 중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식품을 챙겨 주는 반면에,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들은 승진하기 위해 같은 국적의 대만인 노동자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말미에 란웨메이가 외국인 사장, 공장장과 노동조합에 선이디를 징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측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여론을 형성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가가 선이디를 다른 공장장으로 전근시킨다.

“서양인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선(沈)주임은 자신이 그저 서양인 회장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양인이 생산과정을 확인하러 왔을 때 우리 작업원들과 겸손하게 정확한 중국어로 이야기를 나눴어. 우리의 잘못을 발견해도 겸손하게 정확한 작업방식을 시범하면서 지도해주었어. 그런 서양인이 너에게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대하라고 했다고?

53) Michael Burawoy 著, 林宗弘等 譯, 『製造甘願-壟斷資本主義勞動過程의歷史變遷』, 群學出版社, 2005.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맹목적으로 외국인을 숭배하고 지나치게 외국인에게 아부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지.

예전에 미국인 공장장은 우리의 눈 건강을 챙기라고 한 달에 어간유(魚肝油) 영양제 두 병 씩을 주었는데 당신이 공장장이 된 이후 다 없어졌어.(185~188면)⁵⁴⁾

대만인 여공이 같은 국적의 대만인 중간 관리직 노동자가 노동문제를 야기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외국인 자본가가 자신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주는 친절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녀들의 생각대로 외국인 자본가의 기업경영 이념이 노동자의 복지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왜 현장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급급한 린진궈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한편에 여러 면으로 여공의 복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류진관은 좌천되고 말았을까? 대만인 중간관리직 노동자의 관리방식과 그에 따른 승진 결과를 통해 외국인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복지보다 생산성과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칭추는 다국적 기업이 대외적으로 대만인 관리자가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지만 회사 안에서 우대를 받고 실권을 잡는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만인 고급관리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외국인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⁵⁵⁾ 소설 속에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만인 노동자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부장님」에서 링 부장도 월급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업무평가에 연연해 할 수밖에 없듯이, 「승진하는 길」에서 린진궈이를 비롯한 대만인 중간 관리직 노동자들도 외국인 자본가의 눈치를 보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즉, 여공들의 눈에는 외국인 자본가에게 아부하고 동포인 자신들을 괴롭히는 관리직 노

54) “「洋人叫我這樣子。」「洋人來巡視線上，對我們作業員客客氣氣的用純正的國語跟我們交談，發現錯誤也客客氣氣地做給我們看，指導我們改正，洋人會教你對我這樣子？」「我有什麼辦法不是你沒辦法，而是你們崇洋媚外，洋奴性太重了。」「以前的美籍廠長，每月發兩瓶魚肝油完給我們保護眼睛吃，你當上廠長就取消掉了。」”

55) 楊青矗, 앞의 책, 1979再版, pp.150~152.

동자는 맹목적으로 서양인을 숭배하는 매국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업무평가와 개인의 승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칭추의 노동문학이 승진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만인 노동자 간의 문제로 전가시키는 외국인 자본가를 폭로하면서 가장 큰 착취를 당하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없는 여공들이 그러한 동족간의 분열과 경쟁을 조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방식을 인지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IV. 맺음말

이 글은 대만 노동문학이 노사분규보다 노동자 간의 갈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원인을 밝히면서 국민당 독재체제 하에서 대만 노동문학이 검열우회를 하면서 다양하게 노동문제를 접근한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양칭추, 모상천과 리창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간의 갈등은 회사에서 업무평가를 맡은 관리직 노동자가 개인의 사익과 ‘연고주의’를 고려하여 부실한 근무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의 불만을 야기한 것이고, 조선소에서 설계사의 근무지연으로 인해 조선공이 밀린 작업의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야근할 수밖에 없어서 불만을 품는 내용이며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대만인 관리직 노동자가 승진하기 위해 같은 국적의 대만인 여공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다. 대만 노동문학은 노사분규보다 노동자 간의 갈등을 가시화하면서 대만 본토기업의 ‘연고주의’ 문화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각자의 어려움을 밝힌다. 이렇듯이, 대만 노동문학의 표현력은 엄격한 검열제도에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노동문제를 다룬다.

참고문헌

- 楊青矗, 『工廠人』, 敦理出版社, 1975
- _____, 『工廠女兒圈』, 敦理出版社, 1978
- _____, 『工廠人的心願』, 敦理出版社, 1979
- _____, 『工廠人』, 水靈文創出版社, 2018
- _____, 『工廠女兒圈』, 水靈文創出版社, 2018
- 陌上塵, 『夢魘九十九』, 前衛出版社, 1983
- _____, 『玉香集』, 德馨室, 1978
- 李昌憲, 『加工區詩抄』, 德華出版社, 1981
- _____, 『生產線上』, 春暉出版社, 1996
- 葉香, 『微雨: 詩和小品』, 臺東縣文化中心, 1998
- 김원, 「전태일 분신과 80년대 ‘노동열사’ 탄생의 서사들」,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 린위원, 「향토문학논쟁 서언」, 임우경·린리원·쉬슈웨이·왕즈밍 편, 임의선·이용범 역, 『타이완향토문학 논쟁 40주년 자료집』, 성균관대 출판부, 2017
- 박지영, 「1970~80년대 여성노동자 시에 나타난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최명자, 정명자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5, 한국시학회, 2018
- 오자은, 「‘문학 여공’의 글쓰기와 자기 정체화-여공수기와 소설에서 나타난 자기 정체화와 문학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9, 한국근대문학회, 2018
- 이봉범,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 구보학회, 2018
- _____,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 이혜령,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의 초상-1980년대 노동문학론 소고」, 『동방학지』 17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 _____, 「동아시아 근대 매체, 언어, 검열 연구의 궤적과 미래」, 『대동문화연구』 11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 정고은, 「1980년대 노동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연구」,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 천정환,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화사연구』 47, 민족문화사학회, 2011
- 최말순, 「‘本土’와 ‘海洋’-대만 ‘네이션’의 안과 밖」, 『대만연구』 1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2020
- 한기형, 「‘법역(法域)’과 ‘문역(文域)’-제국 내부의 표현력 차이와 출판시장」, 『민족문화사연구』 44, 민족문화사학회, 2010

한만수, 「1930년대 문인들의 검열우회 유형」, 『한국문화』 39,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蕭阿勤, 『重構台灣-當代民族主義的文化政治』, 聯經出版社, 2016

王御風, 『臺灣學通訊』 66, 國立臺灣圖書館, 2012

胡民祥編, 『臺灣文學入門文選』, 前衛出版社, 1989

彭瑞金, 『臺灣新文學運動』, 自立晚報, 1991

解昆樺, 『青春構詩』, 苗栗國際文化觀光局, 2007

黃慧鳳, 『臺灣勞工文學』, 稻香出版社, 2007

白少帆·王玉斌·張恒春·武治純, 『現代臺灣文學史』, 遼寧大學出版社, 1987

楊秀菁, 『臺灣戒嚴時期的新聞管制政策』, 國立編譯館, 2005

薛化元·楊秀菁·黃仁姿, 『臺灣言論自由的過去與現在-我國言論自由及制度變革』, 允晨文化出版社, 2021

尉天聰, 『鄉土文學討論集』, 遠景出版社, 1980

季季, 『行走的樹-追懷我與‘民主臺灣聯盟’案的時代』, 印刻文學, 2015

楊碧川, 『臺灣歷史辭典』, 前衛出版社, 1997

張誦聖 著, 劉俊·馮雪峰等 譯, 『臺灣文學生態-從戒嚴法則到市場規律』, 江蘇大學出版社, 2016

臺灣省政府·臺北市政府·臺灣省警備總司令部 編印, 『查禁圖書目錄』, 1982

蔡盛琦, 「1950年代圖書查禁之研究」, 『國史館館刊』 26, 國史館, 2010

Michael Burawoy 著, 林宗弘等 譯, 『製造甘願-壟斷資本主義勞動過程的歷史變遷』, 群學出版社, 2005

呂正惠, 「台灣七·八零年代台灣鄉土文學的源流與變遷-政治·社會及思想背景的探討」, 陳大偉·鍾怡雯, 『20世紀台灣文學專題-文學思潮與論戰』, 萬卷樓, 2006

張俐璇, 「從問題到研究-中國三十年代文藝在臺灣(1966-1987)」, 『成大中文學報』 63, 成功大學中國文學系, 2018

崔末順, 「‘亞洲基金會’(The Asia Foundation)在臺活動與冷戰時期臺灣文學的傾向」, 『殖民與冷戰的東亞視野-對臺韓文學的一個觀察』, 遠景出版社, 2021

高棟民, 「楊青矗小說中所反映的‘現代化’問題」, 『楊青矗小說選』, 敦理出版社, 1978

許俊雅, 「從楊青矗小說看戰後台灣社會的變遷」, 『臺灣文學散論』, 文史哲, 1994

侯如綺, 「楊青矗小說的『工廠女兒圈』中的女性關懷」, 『臺灣文藝』 182, 2002

李淑君, 「資本主義及現代性下的女工-論楊青矗小說的女工主體與處境」, 『臺灣文學評論』 6(4), 真理大學臺灣文學資料館, 2006

王雅萍, 「誰來發聲?1970年代以後臺灣勞工文學的興起與式微」, 成功大學臺灣文學所碩士學位文, 2007

- 陳曉娟,「楊青矗小說中的抗爭主題」,東海大學中文所碩士學位論文,2000
- 戴華萱,「勞動與性別-楊青矗與曾心儀的女性勞工書寫比較與對話」,『臺灣文學研究學報』31,國立臺灣文學館,2020
- 王振寰·方孝鼎,「國家機器·勞工政策與勞工運動」,『臺灣社會研究季刊』13,臺灣社會研究雜誌社,1992
- 謝世宗,「愛情·性與婚姻的政治經濟學-再論楊青矗的小說」,『臺灣文學研究』9,成功大學臺灣文學系,2015
- ,「企業管理·性別分工與本土資產階級的想像-楊青矗與陳映真比較研究」,『台灣文學研究學報』20,2015
- 賴佳欣,「女兒國度的美麗與哀愁-論楊青矗『工廠女兒圈』的女工群像」,『歷史教育』12,師範大學歷史學系,2008
- 鍾怡君,「楊青矗小說勞動人物研究」,高雄師範大學中文所碩士學位論文,2013

Setting of Labor Issues and Its Significance in Taiwan's Labor Literature of the 1970s and 1980s

Lin, Hsiao-tz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ays that labor issues are set and their significance in Taiwan's labor literature during the 1970s and 1980s in order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Taiwan's labor literature. The representative writers of labor literature in Taiwan are Ching-chu Yang(楊青矗), Shang-chen Mo(陌上塵), and Chang-hsien Li(李昌憲). Their works often focus on disputes between laborers rather than on employer-laborer disputes, which are common in ordinary labor literature. The inter-laborer disputes that they tackle can generally be categorized into two main types; the first is the dispute between the on-site laborers and the management-level laborers who are responsible for job evaluations, and the second is the dispute between Taiwanese management-level laborers and Taiwanese female workers on the production line in international enterprises. I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during that time, the Nationalist regime was wary of labor, peasant and military literature, and enacted a censorship system that restricted the creativity of writers. In other words, the disputes between laborers in Taiwan's labor literature in the 1970s and 1980s were a narrative strategy used by writers, who felt the constraints of the censorship system, to enable their works to survive.

The works of Taiwanese labor literature set in the contex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mplied that foreign capitalists treat Taiwanese female laborers with kindness on the one hand, while using tactics like job evaluations and a promotion system to make Taiwanese management-level laborers demand overtime work from the female laborers in order to increase production, which led to serious disputes among Taiwanese laborers. However, these novels fail to go further in explaining the way in which international corporations operat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mode of operation of international capitalism is so complex that Taiwan's labor literature is unable to paint a clear picture of it. In other words, the complexity of international capitalism limited the expressiveness of Taiwanese

labor literature.

Key Words : Taiwan's labor literature, censorship system, disputes between laborers, connections, promotion system, international capitalism